

#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조금은 슬픈 이별 그랬죠”

다섯번째 시집 펴낸 장흥 출신 '시산맥' 대표 문정영 시인

발표한 100여편 작품 중 52편 엄선 대상과 자아가 빛어낸 말의 울림 운동주 시인 순수한 내면에 감동 광주일보와 공동 '서시 문학상' 제정

“그간의 시집에 내면의 자성을 담았다면 이번 시집에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느낌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조금은 슬픈 이별의 순간들을요. 시집의 제목을 ‘꽃들의 이별법’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감정보다는 참아낸 슬픔을 형상화한 시를 읽으면 만만찮은 무게가 느껴진다. 대개의 경우 이 슬픔은 체험의 발상이면서 한편으로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시인은 현실과 이상,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계간 '시산맥' 발행인이자 운동주서시문학상 대표인 문정영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꽃들의 이별법'을 펴냈다.

시인은 그간 발표한 100여 편의 작품 가운데서 엄선한 52편을 이번 시집으로 묶어냈다. 최근 시집 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의 음성은 담담했다. 천성이 담박한데다 무슨 일을 하든 표나지 않게 처리하는 터라 작품집 출간을 말하는 것도 담담한 모양이려니 싶었다.

문 시인은 “그동안 내가 체험했던 것들과 내면의 움직임이 행간에 널었다”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내가 나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특유의 시적인 어법이 참신하게 다가왔지만, 한편으로 시를 대하는 내공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시집에는 강경희 평론가의 평대로 “대상과 자아의 자유로운 동화와 투사가 빛어낸 말의 출렁거림으로 가득”했다.

“네 앞에서 꽃잎 위 물방울처럼 있는데/ 새벽이 지나간



자리는 빨강다/ 작은 무게를 버티는 것의 꽃들의 이별법/ 한 발로 나를 짚지 못하고 너를 짚으면 계절 하나 건너기 어렵다/ 너를 다 건넸다고 생각했는데, 버티기가 쉽지 않다/ 한 발 내밀 때마다 하늘이 수없이 파랬다 겹어진다...”

표제시 '꽃들의 이별법'은 “동적이지만 요란하지 않고 어두워지지만 침잠(沈潛)하지 않는다”는 평대로 시인의 시적 경지가 드러난 작품이다. 시인은 지나치게 언어를 세공하거나, 그렇다고 형식이라는 틀에 시상을 가두지 않는다. 오랜 세월 시와 함께한 삶이 자연스럽게 체화돼 물이 번지듯 스며든 것이다.

“시인은 천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를 쓰지 않으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 쓰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가 시인이 된 것은, 그리고 시 전문지 발행인으로 살

고 있는 것은 그의 내면에 오래도록 자리한 '문학에 대한 열정'과 무관치 않다. 문 시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문학을 공부했던 탓에 더더욱 목마름이 더 컸다”며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마음이 더 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 창작에 임문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고향 장흥 얘기를 꺼냈다. 시인은 자신의 시적 지향, 다시 말해서 대상을 나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닌 내가 대상으로 들어가 그 대상을 폭넓게 변주하는 것은 불교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집 중 고향을 소재로 한 ‘장흥’, ‘담진’은 어머니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수몰되기 전 고향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고 저의 정서는 고향의 강과 산, 들과 그리고 따스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고향의 보림사는 어릴 적 단골 소풍장소였으며 저의 유년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지요. 아마도 그 때문인지 불교의 자비는 늘 추구하는 세계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 시인은 현재는 서울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때 광주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1991년 30대 초반의 일이다. “당시 카톨릭회관에서 광재주 시인 창작반에서 지도를 받으며 문학의 꿈을 키웠다”는 말에서 문정 시집의 모습이 가능되었다. “숫자를 다루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은행 업무는 자꾸만 밖으로 돌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1997년 ‘월간문학’으로 등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시산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동인들과 함께 온라인 활동을 하다, 마침내 오프라인 시 전문지 ‘시산맥’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문 시인의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운동주 시인 선양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광주일보와 ‘운동주서시문학상’ (본상 1000만원)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올해 3회째 운영 중이다. 11월에 제3회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운동주 시인이 지닌 순수한 내면에 빠져들면서 서시문학상 사업을 하게 됐지요. 운동주의 순수성에 조금이라도 마음 같음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구요. 올해는 제2회 수상자인 오태환 시인과 함께 후쿠오카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역량이 될 때까지 진정성 있는 문예지와 상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일 전통문화관서 '광주 국악인 한마당'

(사)한국국악협회 광주지회(지회장 함태선)가 오는 10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윤립동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2018 제1회 광주 국악인 한마당 대축제'를 연다.



황승욱 명창 이순자 명창

‘국악인의 날’ 선포식이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4회 무등울림 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국악인의 날’ 선포는 지난 1994년 ‘국악의 해’ 제정 이후 우리 전통 예술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선포식 뒤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20개 단체가 전통 예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강강술래에 이어 채춘례 단장이 이끄는 아리문화예술단의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열고 유명속 명인의 ‘호남검무’, 시도 무형문화재 황승욱씨의 가야금병창이 이어진다. 아울러 광주무형문화재 1호 이순자 명창이 판소리 ‘춘향전’의 한 대목을 무대에 올리고 박지현 고수가 소리

북 산조를 선보인다.

또 명인들의 전통무용 춤사위가 무대를 꾸민다.

김성희씨가 신을 위로하는 무속춤인 ‘지전무’를 무대에 올리고 박병주 ‘진도 북춤’, 이정숙 ‘화선무’와 최미애씨의 전통무용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운다. 문의 062-524-8300.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오페라 '카르멘'·스페인 민요 등 무대에

임지현 귀국 독창회

12일 유·스퀘어 문화관



꾸렸다.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 '내가 땅에 묻히거든'으로 문을 열고 이어 슈베르트의 '그대는 나의 안식', '마왕'을 선보인다. 또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풀랑크의 아름다운 가곡 '그게 네 모습이야', '사랑의 길'과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내 마음은 당신의 목소리에 쫓기린다'로 무대를 꾸민다.

메조소프라노 임지현(사진)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갖는다.

전남대 음악학과에서 공부하고 광주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한 그는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리치니오 레피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로마 A.M.I 아카데미아 성악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로마 아카데미아에서 성악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지휘자 마르코 발데리 마스터 클래스와 메조소프라노 데보라 베로네시 성악코스를 끝냈다. 한·이 수교 130주년 갈라콘서트와 이탈리아 프로시노네네스토르 극장에서 열린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에서 '도라벨라' 역으로 출연했다.

앞으로 국내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임지현은 이번 귀국 독창회를 오페라, 가곡, 스페인 민요 등으로 다채롭게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풀랑크의 아름다운 가곡 '그게 네 모습이야', '사랑의 길'과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내 마음은 당신의 목소리에 쫓기린다'로 무대를 꾸민다. 2부에서는 '무어인의 옷감',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노래' 등 스페인 민요 7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돋운다. 뒤이어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세기다야'를 부르며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오 나의 페르난도'로 끝을 맺는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21-2340. /박희준 기자 bhj@



'이천거북놀이' 중 '터주굿'.

## 터주굿·양주소놀이굿...진도서 팔도 놀이굿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 11~13일 '굿음악축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팔도의 놀이굿을 진도에서 만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13일 국악원 달빛마당, 연수관 등에서 '2018 굿음악축제'를 연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굿음악축제는 매년 6월에 열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부터 10월에 개최한다.

'놀이굿, 공동체 화합과 기원의 전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연, 학술회의, 배우기 등으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11일 오후 7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44호 경산자인단오제로 시작을 알린다. 신라시대 한장군과 누이가 도천산에 살며 자인현 주민들을 괴롭히던 왜구들을 무찌르기 위해 준 '여원무'와 한장군을 추모하는 가면극 '자인 팔광대'로 무대를 꾸민다.

다음 날 오후 7시 선보이는 이천거북놀이(경기도무형문화재 50호)는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남부와 충청지역에서 행해진 전통 민속놀이이다. 추석에 거북이 형상을 만들어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는 이 놀이는 우물굿, 문굿, 터주굿, 대청굿, 마당판굿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초청공연에는 심덕구 이천거북놀이 보존회장과 김지복(가수), 이일규(질러야비), 손중환(거북이)씨와 풍물패 등이 출연한다. 같은 날 무대에 오르는 양주소놀이굿(국가무형문화재 70호)에서는 소를 끌고 온 마부가 무당과 해학적인 재담을 펼쳐놓는다.

12-13일 오전 세미나실에서는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이천거북놀이 기원의식의 전통과 변화', '동해안별신굿 굿놀이의 변화양상과 요인' 등을 주제로 학술 회의가 진행된다. 문의 061-540-4035.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오늘산책'·전남 '나주것들' 청년 인문상상 사업 선정

광주의 '오늘산책'과 전남의 '나주것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청년 인문상상'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청년 인문상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지역의 청년 인문 전공자들에게 새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 '오늘산책'의 '청년 책살이'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책을 생계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일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다. 책을 매개로 지역에서 살

아가기 위한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전남 '나주것들'의 '청년 청년 어디서 뭐하니?'는 지역 청년들을 원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청년 인문·문화프로그램이다. 청년네트워크 조직 등 청년세대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각 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인문전공자는 참여 단체에 직무 실습(인턴십), 프리랜서, 공동프로젝트팀 등의 형태로 함께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HANNEL A 미니시리즈

# 열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